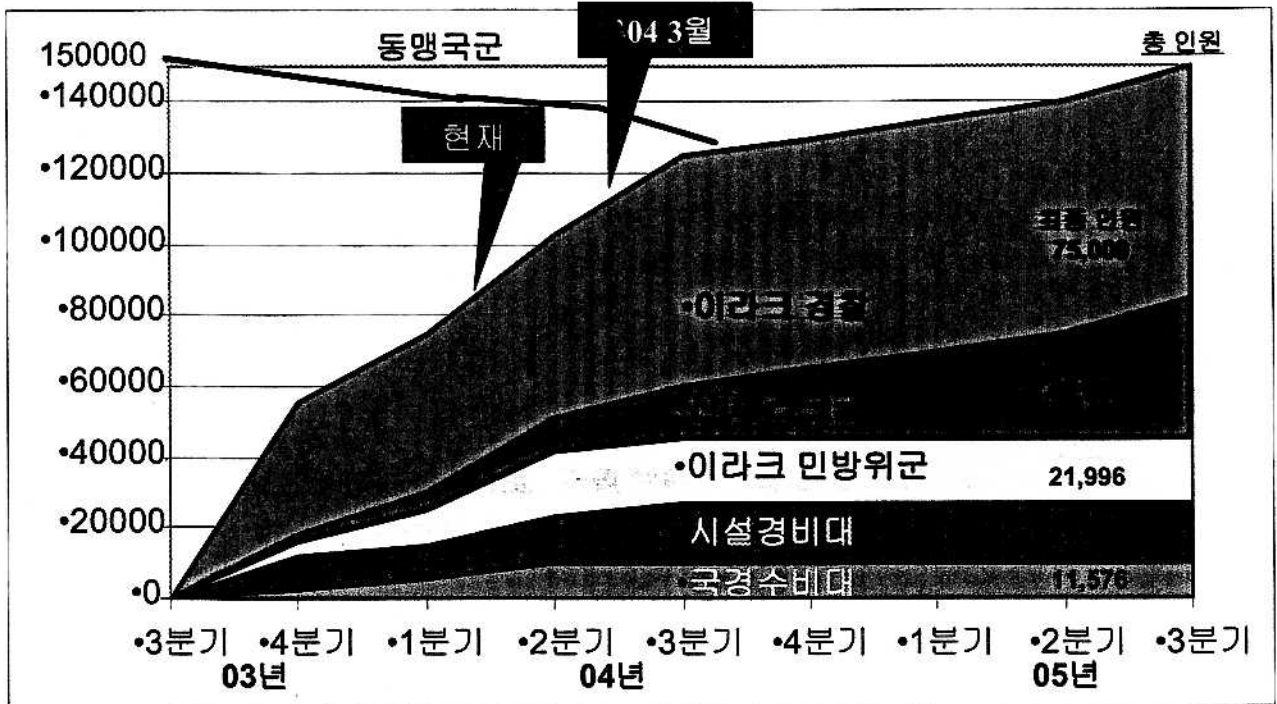


○ 이라크군 재건계획



□ 이라크 통치기구의 문제점

- IGC 구성원 25명중 시아파가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과거 권력을 독점 해온 수니파는 5명에 불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反感도 고조
 - 美軍政에 우호적이던 南部 시아파 내부에서도 불만 확산
 - 시아파 성직자 내부에서는 美國의 戰後처리에 긍정적인 「시스타니」 측과 美軍 철수를 요구하는 「사드르」 측간 갈등이 표면화
 - 시아파 회교도들은 「후세인」 政權 붕괴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民生苦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으로 反美 정서 확산
 - UN安保理 決議案 채택(10.16)에도 불구하고, 러·佛·獨 등 反戰 연대국 들은 조기 민정이양만이 이라크 사태해결의 대안임을 주장
 - 장기 독재를 통해 절대적 카리스마를 누려온 「후세인」에 필적할 만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지도자 不在도 체제안정의 걸림돌
- ※ 설사, 美國이 지원하는 民主政府가 수립되더라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어용·괴뢰정권이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새정부의 正統性 확보문제도 여의치 않을 전망

5. 재건지원 소요

가. 사회 기반시설 분야

(1) 이라크 전체 소요

□ 도로

- 도로 총연장은 40,690km로 이중 향후 도로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도로는 2,326km이며, 추정소요예산은 약 8억 13백만불
- 도로교량 1,156개소는 대체로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교량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교량은 총 31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18백만불로 추정

□ 철도, 공항, 항구

- 철도는 총연장 2,456KM로 음 카스르(Umm Qasr) 항구가 국제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자 중요성이 부각
 - 주요 교량 중 알 다사 교량(Al Datha, 베지 근처)과 아카샤트 교량(Akashat, 시리아국경 근처)의 보수공사가 필요
- 공항은 5개로 국제공항 2개소(바그다드, 바스라)와 국내공항 3개소 (모술, 키르쿠크, 아르빌)가 있으나 큰 피해는 없음
- 항만은 6개의 화물전용항이 있으며, 음 카스르항을 국제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작설비, 화물창고 등 항만설비공사 등 필요

□ 공공건물 및 주택

- 향후 자금확보가 필요한 공공건물은 48개소로 소요비용은 약 3억 92백만불로 추정되며, 주택수요는 약 11만 2천호로 소요예산은 20억 61백만불

□ 석유

- 석유생산시설의 복구('91수준)에 향후 3년간 50억불 소요 예상
 - 전쟁피해와 후세인 추종세력이 원유수송관이나 정유소 등 석유시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큰 피해 발생

- 석유생산량은 전쟁 직후 80만 배럴정도였으나, 현재 일일 200만 배럴(전쟁 직전 250만 배럴)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원유수출량은 100만 배럴 수준
 - '04년초까지 일일생산량 250만 배럴 생산목표
 - '04년말까지 300만 배럴(250만 수출), '05년말까지 350만 배럴 생산계획

□ 통신

- 바그다드 시내의 유선통신은 대부분의 전화국이 파괴되어 마비상태이며, 완전복구까지는 장기간 소요 예상
 - CPA는 임시로 8,000여선의 이동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중
 - 시내 곳곳에 인터넷 카페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전력

- 전기공급 사정이 열악하며 발전부문 복구에 2년정도 소요 예상
 - 발전소와 변전소에 대한 사보타주와 송전선의 구리약탈을 위해 송전탑 파괴행위 다수 발생
- 이라크 전력 필요량은 6,000MW이나 10월 현재 4,500MW에 불과 (전쟁전 4,400MW)
 - 지난 13년의 유엔 경제제재 기간동안 발전소의 개·보수 공사만 가능, 발전소 건설이 없었던 것도 전력부족의 한 원인으로 작용

□ 상하수도

- 수돗물 공급이 열악한 상황이나 전기공급 보다는 양호
 - UN은 상수공급 재건에 160억 달러, 소요기간 4년 추정
 - 남부지역 177개 상수처리장 중 26%인 45개의 상태 열악(벡텔사 초기 조사결과)
- 전쟁당시 하수 및 배수시설은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전력공급 정지와 약탈 등으로 송배수 펌프장 및 하수처리장이 큰 피해
 -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에서 설사 등 물 관련 질병 급증
 - 하수처리시설의 복구에 의한 도시위생 개선과 주요 상수원인 티그리스강의 수질개선 시급
- ※ 일본정부는 금년 6월 조사단을 파견하고, 바그다드시 서부지역의 하수펌프장 5개의 복구사업을 긴급 지원키로 함

(2) 지역별 소요

□ 북부지역(아르빌, 슬라이마니아, 도혹, 타뎀, 디알라, 니느웨, 살라딘)

- 향후 재원확보가 필요한 도로공사 소요는 1,230km이며(183.7백만불), 교량 17개소(44.6백만불), 공공건물 7개소(43백만불), 주택 16,460호(233.2백만불)

(단위: 백만불)

주명(주요도시)	도 로	교 량	공공건물	주 택
아르빌주	352km(19.4)	-	3개소(32)	3,544호(23.2)
슬라이마니아주	-	-	-	1,100호(11.9)
도혹주	265km(22.4)	2개소(1.2)	-	2,104호(24.1)
타뎀주(키르쿱)	170km(27.4)	13개소(30)	3개소(7)	3,100호(49.2)
디알라주(바꾸바)	64km(3)	-	-	2,396호(39.7)
니나와주(모술)	335km(107.7)	1개소(2)	1개소(4)	2,108호(49.2)
살라딘주(싸마라)	44km(3.8)	1개소(11.4)	-	2,108호(35.9)

□ 중부지역(바그다드)

- 향후 재원확보가 필요한 도로공사 소요는 190km이며(비용 536백만불) 교량 1개소(비용 1천만불), 주택 69천호(비용 1,364백만불)

□ 중남부지역(안바르, 나자프, 까드싸야, 바빌론, 카르발라, 와시트)

- 향후 재원확보가 필요한 도로공사 소요는 496km이며(62백만불), 교량 6개소(34백만불), 공공건물 26개소(264백만불), 주택 15천호(301백만불)

(단위: 백만불)

주명(주요도시)	도 로	교 량	공공건물	주 택
안바르주(라마디)	159km(29)	1개소(8.7)	5개소(57.5)	2,612호(36.4)
나자프주	38km(1.7)	1개소(8.7)	7개소(25.8)	2,600호(53.5)
까드싸야주	125km(13.8)	1개소(0.7)	3개소(11)	2,108호(28.1)
바빌론주(힐라)	96km(13.3)	2개소(2.4)	3개소(90.3)	2,108호(95.2)
카르발라주	26km(1.3)	-	5개소(72.7)	3,612호(54.9)
와시트주(쿠트)	52km(2.5)	1개소(13.4)	3개소(6.5)	2,104호(33.3)

□ 남부지역(바스라, 무산나, 디카르, 마이싼)

- 향후 재원확보가 필요한 도로공사 소요는 410km이며(31.8백만불), 교량 7개소(29.8백만불), 공공건물 15개소(84.7백만불), 주택 11,424호(162.8백만불)

(단위: 백만불)

주명(주요도시)	도 로	교 량	공공건물	주 택
바스라주	37km(1.8)	4개소(21.7)	10개소(48.2)	4,608호(65.9)
무산나주	77km(3.7)	2개소(7.4)	4개소(34.5)	1,600호(20.6)
디카르주(나시리아)	185km(18.8)	1개소(0.7)	-	2,108호(35.9)
마이싼주(아마라)	111km(7.5)	-	1개소(2)	3,108호(40.4)

(3) 이라크 주민들의 기대

- 키르쿠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기 및 용수공급 증대, 쓰레기 처리, 주택공급 등임
- 티크리트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기공급의 증대
- 모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전기 및 상하수도 공급 증대, 의료서비스 확충, 도로 및 교량 보수공사, 학교설립 등 교육확충의 순서
- 경제발전과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실업자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술 지역경제에 외자유치가 필요하고, 한국기업들이 모술에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과병시 지역개발계획과 투자에 관심을 표명

(4) 한국의 기여방안 검토

- 이라크 재건지원금('03년 6천만불, '04~07년 2억불)으로 실시하는 원조 사업을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제공
- 이라크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기한 전기와 상수도 공급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능력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립·시행

- 단기적으로는 발전기나 급수차 등 긴급 기자재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
- 장기적으로는 변전소나 상하수도의 개·보수 공사 설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라크 원조사업과 연계 추진
- 한국군 주둔지역에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이라크 투자금 특별세액 공제, 이라크 재건 투자펀드에 세제혜택 등 유인책 마련

나. 보건의료 분야

(1) 개요

□ 걸프전 이전 지역 최고수준에서 걸프전 이후 최후진국으로 전락

- 이라크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유지
- 1980년 중반 이후 지난 20여년간에 거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이라크는 이 지역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후진국으로 전락

□ 보건의료체계는 병원중심의 고비용·저효율 체계

- 의약품, 의료장비와 전문인력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대단히 낮은 상황
- 공급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이라크 국민의 건강 수준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

-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영양실조 등의 문제가 심각

건강 지표	건강 수준
영아사망률	108명/1000명
유아사망률	131명/1000명
모성사망률	294명/100,000명

[자료원;국제아동기금(UNICEF)]

- 공중보건체계의 와해와 불안정한 급수 및 불량한 위생상태는 전염병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말라리아, 콜레라, 레이쉬마니아증 등이 토착화되어 있는 상태

□ 재건 동향

- 마드리드 원조공여국 회의(10.23-24)에서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단기 요구과제(2004)와 중기요구과제(2005-2007)를 결정
- UN과 World Bank는 IMF, EU, CPA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협조하에 전후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요구(Need Assessment)를 조사하여 합동보고서를 발표(2003. 10)
- 향후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서비스를 긴급하게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질병예방과 1차 의료 강화에 기초하여 이라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형을 제시

(2) 보건의료 재건 소요

□ 이라크 주요 의료기관 현황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공공의원
256	73	1,641	361

- 전쟁 직후의 업무수행 기능은 전쟁 전에 비해 평균 80% 이상 수준을 유지 : 바그다드 80%, 남부 85%, 북부 90%(10. 21, CPA 내부자료)

□ 보건의료분야 재건을 위한 소요액

- UN/WB는 향후 4년간 약16억불로 추정

(단위: 백만\$)

주요 투자 분야	2004	2005-2007	총계
병원(Hospital)			
1차 의료기관(PHC Clinic)	500	1,100	1,600
진단검사시설(Clinical Lab)			

- CPA는 UN/WB의 비용을 포함하여 향후 11년간(2004년 ~ 2013년) 약 51억불로 추정(CPA 내부자료, 2003)

(단위: 백만\$)

FY4	FY5	FY6	FY7	FY8	FY9	FY10	FY11	FY12	FY13	FY14	총계
734	595	644	477	417	419	421	423	425	427	141	5,123

- CPA는 재건 지원을 위해 2003년도(7월 - 12월)예산; 210백만불, 2004년도 예산; 942백만불을 편성하였음.

(2003년 7월 - 12월 예산)

예산내역	예산액(천\$)
의약품, 의료시설·장비	125,000
특수 의료사업	1,803
공공 보건 사업	15,365
자본 비용	39,000
기 타	29,482
총 계	210,650

(3) 이라크 주민들의 기대

□ 의료 인력의 질 향상

-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한국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라크 간호인력에 대한 훈련(Teacher's Trai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의사들의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연수과정을 통해 수련 기회를 제공.
 - * 이라크 의사의 수준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으나, 후세인 정권에서 선진 외국의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 일본은 총 30여명의 의사에 대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금년 이라크 의사 5명을 초대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 의약품 공급과 의료 시설·장비의 현대화

-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과 현대식 의료 장비의 보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모술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함
- * KOICA가 바그다드 지역에 기존의 수련병원에 약 800만불을 투자하여 중환자실 등을 보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국 의료진이 이라크에서의 활동을 확대

- 우리 군 의료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결과 파병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요구

(4) 한국의 기여 방안 검토

□ 우리 군 파병에 따른 종합 계획의 틀 속에서 부문 활동으로 검토

- 파병의 종합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도적 사업 수행 및 지원 활동으로 규정
- 보건복지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전문가 및 전문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통해 세부 사항을 협의·조정함

□ CPA와 긴밀히 협의하되 독자적인 사업 수행 권한을 확보

- CPA의 재건 계획과 목표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판단,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
- 아국이 분담하는 이라크 재건 지원금은 우리 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제공

□ 이라크의 단기간(2004년) 보건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선택과 집종의 원칙을 적용한 자원 투자의 효율 극대화

- 주민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필수 의약품/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보건의료 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므로 시설의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Adapt-a-hospital)하여 활용

- 파병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가칭 한국병원) 진료 제공 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 및 개발, 예방보건사업 지원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모형병원 개발
- * 한국전 당시 국립의료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이 공동지원하여 한국의 중심병원으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
- 의사, 간호사 등 인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능력 개선에 목표를 둔 단기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 이라크의 중장기(2005년 이후) 수요 충족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예방보건사업 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성공적인 우리나라의 보건소 제도 소개
 - 이라크의 보건의료 향상에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염병 관리 사업 집중 지원
 - *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기생충관리사업
- 이라크 지역 주민들의 참여 보장
 - 파병 지역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활동에 지역사회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대표 직접 참여.

다. 교육·훈련 분야

(1) 이라크 전체소요

* 출처: Mr. Leslye A. Arsht, Senior Advisor the Education Ministry, CPA 제공자료

□ 20여년간 교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1980년대까지 중동지역에서 가장 발달하였으며, 취학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
 - 1889년의 교육예산은 GNP의 6%(25억불) : 학생 1인당 620불
- 국가재정이 궁핍해짐에 따라 교육 예산은 지난 20여년간 계속해서 감소,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 인프라가 노후화
- 2003년 전쟁기간 중 주민들의 약탈과 방화로 상황은 더욱 악화

□ 이라크 교육 관련 주요 지표(2003.11)

- 학생 수: 약 600만명
- 학교 수: 18,000개, 학교건물: 1,500개 동 (일부 학교 공동 사용)
- 30% 이상의 학교들이 2부제 또는 3부제 수업, 1993-2002간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47불에 불과

□ 전후 이라크의 교육 여건

- 중도 퇴학율이 크게 상승하여 6-11세 어린이(초등학교 학생)들의 25% (여학생 30%, 남학생 17%)가 취학 포기
- 도서관, 실험실과 같은 교육의 기초 시설이 크게 부족
- 교육과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치화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교사의 훈련 기준이 저하되고 내부 직무교육이 극히 제한
- 약 80%의 학교가 수리 및 재건축 필요
 - 700개의 학교가 완전파괴 되어 재건축 필요

- 중등학교의 70% 이상이 쓰레기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60% 이상이 화장실 사용 불가능

□ 이라크 교육분야 재건 수요: 2004~2007간 매년 10억불씩, 40억불 필요

- 수리 및 복구(Rehabilitation) : 10,000 개교(전체의 55%)
- 4,500개 학교 신설, 700개 학교 완전철거 및 재건축
- 교실 1~2개 및 화장실 등 부대설비 증축 : 3,000개 학교
-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수리 : 7,200 개교(전체의 40%)
- 초·중등 학교에 대한 도서관 설립 및 81개의 도서관 차량 제공 등

□ 고등교육 및 과학교육 재건소요: 향후 5년간 12억 1천만불 소요

(단위 : 100만불)

구 분		기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계
건물 신축 및 재건축		3년	135	94.5	40.5	-	-	270
대학 교과과정 재구축		3년	30	70	100	-	-	200
이라크 지적 생활 재건	소 계	5년	150.3	136	171.3	161.5	71	690
	전국 대학정보망, 컴퓨터기술 인프라	"	97.8	84	82.3	54.5	21.5	340
	교수, 학생 교환을 통한 고립 탈피	"	42.5	32	29	27	19.5	150
	신기술 연구소 설립	"	10	20	60	80	30	200
경영대학원 설립 및 최고 경영자 과정 개설		3년	1	17	32	-	-	50
총 계		금 액	316.3	317.5	343.8	161.5	71	1,210
		구성비	26%	26%	29%	13%	6%	100%

□ 경영대학원 설립 및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개발: 50백만불

-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향후 5년간 예산안

(2) 지역별 교육분야 재건 소요(출처 : 이라크 교육부 자료)

□ 각 지역별 학교 피해 현황

구 분	지역명	안전	경미한 피해	심각한 피해	완전 파괴
북 부	도혹	24%	28%	48%	0%
	디알라	19%	43%	38%	0%
	아르빌	40%	20%	39%	1%
	니느웨	12%	41%	44%	3%
	슬라이마니아	39%	30%	29%	2%
	타밈	14%	28%	54%	4%
중남부	바벨	17%	41%	42%	0%
	까르발라	15%	25%	60%	0%
	나자프	11%	31%	57%	1%
	까드시야	18%	30%	50%	2%
	와시트	25%	39%	35%	1%
남부	마이싼	17%	41%	42%	0%
	무산나	24%	30%	46%	0%
	디까르	17%	32%	48%	3%
	바스라	24%	38%	36%	2%

□ 지역별 난방기 작동이 가능한 학교 현황

구 분	쿠르드북부	북부	중남부	남부
히터 사용 가능 학교	41%	38%	0%	0%

□ 각 지역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 학교 현황

구 분	지역명	화장실 사용가능 학교
북 부	도혹	42 %
	디알라	18 %
	아르빌	61 %
	니느웨	40 %
	슬라이마니아	62 %
	타딤	28 %
중남부	바벨	15 %
	까르발라	16 %
	나자프	16 %
	까드시야	8 %
	와시트	17 %
남부	마이싼	15 %
	무산나	11 %
	디까르	16 %
	바스라	13 %

□ 키르쿠크 지역의 교육분야 재건 현황 (출처 : 제 4사단 제공 자료)

- 대부분의 학교가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과 기능 회복
- 키르쿠크 지역의 845개 학교에 대한 평가 완료
- 바트당원 축출이 완료되고 2,000명의 교사와 직원 충원
 - 급료를 지불할 예산을 재무부에서 배정하지 않고 있음
- 80개 학교의 개보수가 완료되고 26개 학교의 개보수 진행중
 - 83개 학교의 개보수는 NGO에 위임/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음
 - 6개의 새로운 학교가 설립됨. 대부분의 학교가 개보수 요구
- 교사 훈련 상황은 극히 저조

□ 키르쿠크 고등교육기관 재건복구 현황(출처: 상동)

- 대학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발휘하고 있으나 교육시설이 노후하고 실험 장비가 크게 부족
- 기술전문대 및 기술대학에서 28명의 바트당원이 축출되고 학장선거가 완료됨(바트당원 전력자는 학교 경영에 참여가 금지)
- 대학들의 대규모 개보수 프로젝트 진행이 미흡
 - 기술대학의 야간수업을 없애기 위해 2층 건물의 13개 강의실을 6개의 큰 강의실로 개조하는 사업을 제안
- 교육 기자재 공급이 부진
 - 기술전문대에서 컴퓨터 60대를 구입하고 ACDL, VOCA에서 의자 458개, 책상 75개를 기증하고 유리창과 출입문을 설치

□ 키르쿠크 학교 개축 현황(출처 : 상동)

- 개축을 요하는 682개의 학교 중 1단계 개축 57개교가 진행중이며 모범학교 설치는 4개교만 진행될 뿐이며 여타 학교는 개축공사가 미착수

□ 키르쿠크 지역의 교육분야 최우선 프로젝트 (출처 : 미 173 공정여단)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제 안 일
알 일랍 모델학교	키르쿠크	하수도, 위생시설, 창문, 출입문 등 수리	\$23,000	2003.7.13
교육부 차량	키르쿠크	승용차/픽업트럭 각 2대	\$68,000	2003.11.2
125개 학교 보수	키르쿠크	일반 개보수	학교당 \$20,000~\$40,000	2003.7.15~ 현재
알 이라크 학교	하위자	일반 개보수	\$19,500	2003.7.28

□ 아르빌 지역의 교육 현황 (출처 : 미 404 민사대대 제공자료)

- 아르빌 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가 전기 및 상하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전 정권인 사담 시절에 쿠르드족 거주지역이 각종 국가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학교시설 역시 피폐

- 살라딘 대학과 7개의 기술학교의 실습장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

□ 모술지역의 교육분야 재건 현황 (출처 : 미 101 공정사단 제공자료)

-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개교율이 빠르게 증가

- 니나와주에서 연합국 군대가 400개의 학교를 NGO들이 재정비

- 대학과 의과대학에 인터넷, 대학 도서관에 책 제공

- 19개의 대학과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

- 니나와주 교육분야에 2003.11.5 현재까지 약 4백만불 지출

(3) 이라크 주민들의 기대

□ 학생들의 통학버스 제공요망(키르쿠크 부시장)

- 이라크는 교육이 전부 무상교육이나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취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

- 특히 시골의 원격지 학생들의 통학은 심각한 문제

- * 미 4사단 Mr. Bus에게 구두 질의로 확인

□ 아르빌 지역의 교사훈련, 실험실습장비 제공, 교실 신축 지원 시금 (아르빌, 미 404민사대대 CPT. Heath Wells)

- 아르빌은 전쟁의 피해가 없었지만 현재까지 각 급 학교가 수업을 재개 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복구가 이루어 졌을 뿐이므로 교사 훈련, 교과서, 실험 실습장비, 학교건물 건축 등의 지원 시금

(4) 한국 정부의 기여방안

□ 초·중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시찰연수 프로그램 운영

- 이라크 초·중등 교사 및 대학교수들은 구 정권 시절(20년간) 해외 여행 불허로 해외 시찰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사료
- 새로운 교육 기법 습득 및 교과과정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
- 각급 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경제, 사회 현황과 교육 현장을 시찰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조성이 가능

□ 초·중등학교의 개보수, 증축 및 신설 사업 추진

- 대부분의 학교들이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사담 정권에게 소외당해 온 북부 지역이나 시골 지역의 교실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
- 대부분의 학교에 식수 설비가 없거나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 식수원 개발 및 급수탑 설치가 시급
- 대부분의 학교들이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 하고 하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으므로 화장실 및 위생처리 시설 설치가 시급

□ 대학교 및 기술 학교의 실험실습실 신축 및 개보수

-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 및 노후
- 각 대학과 기술학교에 실험 실습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친한 인사 저변확대를 도모

□ 산업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지원

- 기존 직업훈련학교들의 노후한 실습장비 교체, 보완
- 자동차 정비, 용접, 목공, 전자제품 수리, 컴퓨터 등과 같이 이라크 재건에 필수적인 기능 인력 양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직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분야 집중 지원

6. 주요 사안에 대한 면담 인사들의 인식

가. 우리의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반응

- 이라크 국민들은 외국군 파병보다는 장비와 훈련의 지원을 희망하며, 재건지원에 기여하는 부대를 권유
- 치안임무 수행에 있어서는 미군과 차별화하여 공개적이고 독자적인 별도의 작전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① 파병 자체에 대한 인식

- 기본적으로 IGC와 이라크 국민은 외국군의 파병에 대해 유보적이고 민감하게 생각하며, 파병에 반대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심정이 이라크 국민들의 심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단, 한국처럼 먼 국가는 인접 국가 보다는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음(IGC 위원)
 - 이라크 국민들이 치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파병 보다는 치안 확보를 위한 장비와 훈련의 지원을 기대함
 - * 파병 요청 또는 환영 의사 표명 타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한국 조사단의 방문 목적과 파병의 목적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반응
- 과도통치위는 이라크의 치안(security)과 안정(stability) 회복을 최우선시 하는 바, 내부적으로 이라크 국민 스스로에 의한 치안 확보 및 안정 회복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음(IGC 위원)
- 과도통치위는 최근 터어키군 파병거부를 자체결정 이후 이라크 국민 스스로에 의한 치안확보 및 안정 회복을 희망한다는 내부입장을 결정한 바 있음(임시내각 장관)
 - 이러한 과도통치위의 내부 입장은 general direction이라 볼 수 있으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봄
 - 한국은 터어키와는 다르며, 한국정부가 국내여론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함
- 한국군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도적 방법을 통해 이라크인을 서브하고 특히 보건·치안문제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임(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대다수 국민들은 이라크 치안은 이라크인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외국세력의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있음(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치안은 군(military)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경제·사회·의식 등 모든 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외국군 파병으로 치안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음
 - 한국의 파병이 이라크 역사에 있어 좋은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라크는 터키 등 인접국들의 파병에는 명백히 반대함. 그러나 영토점령 등의 야심이 없는 나라의 파병은 환영함(타밈州 주지사)
 - 이라크에는 현재 제대로 조직된 군대가 없으며, 경찰력도 없음. 영토 점령의 야심이 없는 우호적 군대는 환영함
- 쿠르드 지역은 안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있음. 주민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중·남부지역은 치안이 불안한 상태로 이라크주둔 연합군의 도움이 필요함
 - 단, 터키·시리아·요르단·사우디·쿠웨이트 등 인접 6개국에 대해서는 특수한 입장에 있어 이들 국가의 파병에는 반대함
- 쿠르드 지역은 외부세력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성 쿠르드자치州 주지사)
-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우호적 군대는 환영하며 연합군과의 협력과 같이 한국군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임(니나와州 부지사)
- 니나와州와 모술市는 한국군을 환영함(모술市 경찰서장)
- 추가파병에 대한 공식 입장 및 승인 여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하여야 할 정치적 사안이며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음(나시리아 시의회 의장)
 - 단, 나시리아 주민들은 후세인 치하에서 고통을 받아온 바, 파병문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파병은 환영함.
- 한국의 파병은 긍정적이고 이라크인에게 유익하다고 봄. 나시리아지역 부족은 서희·제마부대와 계속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부족 지도자)

② 파병부대 임무에 대한 의견

- 이라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化'(Iraqization)이며, 이는 치안·정치·경제의 이라크化를 말함. 파병의 규모·시기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안일 것임(IGC 위원)
- 한국의 추가 파병시, 이라크의 재건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공병부대 파견이 바람직 할 것임(임시내각 장관)
- 재건지원에 도움을 주는 부대는 좋으나 비전투군이라도 미군 통치하에 있으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오만한 미군과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이라크 前 정부고위관리)
- 치안유지를 위한 전투부대는 반대하며 재건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를 권유함. 재건복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훌륭한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임(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한국군의 활동으로 치안질서가 확보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파견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봄
- 연합군 이전에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 6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음(쿠르드자치주 주지사)
- 모술시는 한국군의 파병을 환영할 것임. 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이라크의 분열을 막아 주고 있어 연합군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 니나와州 대다수의 의견임(모술市 의원)
- 한국의 파병이 군사적 목적 뿐 아니라 인도적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며, 인도적 지원(보건 및 재건 지원)을 통해 양국간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람(나시리아 종교 지도자)

③ 한국 파병시 공격 가능성 판단

- 한국군 파병시 후세인 추종세력(FRL: Former Regime Loyalists)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한국군뿐 아니라 이라크인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고 있음(IGC 위원)
- 합법적 정부가 없는 이라크에 파병되는 외국군은 미군과 협조하려고 오는 것으로 '내 적의 친구는 나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라크 前국회의장 고문) .

- 한국군의 역할은 미군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과격 세력에 포섭되기 쉬운 군출신 실업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한국군의 파병시 일반 이라크인들의 무력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후세인 추종세력 등 과격 이슬람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라크인 대부분은 한국인과 한국군에 대해 긍정적이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나 비전투병이라도 과격세력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이상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쿠르디스탄에서는 공격받을 가능성은 없음. 그러나 중·남부 지역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음(쿠르드자치주 주지사)
- 모술지역에서는 미미한 세력들의 연합군 공격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군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만간 일망타진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없음. 모술의 경찰력은 매우 강하며 한국군 앞에 이라크 경찰이 있을 것임 (모술市 경찰서장)
- 모술시는 8개區로 구분되며, 이중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은 2개 區임. 이라크의 경찰력과 통치력이 강화되면 테러는 없어질 것임(니나와州 부지사)

④ 한국군 파병시 유의할 점

- 이라크 국민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특히 진심으로 돕는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군은 군대로서의 활동만 아니라 이라크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야 할 것임. 이라크는 기원전 4,000여년 이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를 찬란히 꽃피웠던 나라임.
- 이라크 국민들은 한국을 친구로 대할 것이니만큼, 한국민도 이라크 국민을 친구로 대해 주기 바람(이상 IGC 위원)
- 각 지역내 종교 지도자·부족장 등 영향력있는 유력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재건노력을 도와주어야 함. 특히 의료서비스·정수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함.
- 정부시설 보수후 한국 로고 간판을 설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는 등 공고한 경제협력 기초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 한국이 이라크의 재건과 경제발전에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치안임무 수행에 있어 미군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미군과 함께 행동하지 말고 미군과 차별화하여 공개적이고, 독자적인 별도의 작전 운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군은 미군이 철수한 일정 지역에서 역할을 인계받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미군과 구별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반드시 지역경찰들과 협력, 활동을 하여야 함(이상 이라크 국제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한국군들이 비록 친절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미군과 연계되면 이라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미군과 동일시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라크인들이 '자기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점임. 이라크에 주둔하는 한 이라크 국민과 전통, 그리고 종교를 존중하여야 함(이상 前 이라크국회의장 고문)
- 이슬람 관습 존중, 부족 및 이슬람 종교지도자 존중, 인권 존중과 미군이 하는 식으로 이라크인들을 자극(provoke)하지 말고 특히 여성들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것을 당부함(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전통과 관습의 존중, 이라크 국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잘 모르는 이라크인과 함부로 접촉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든 이라크 치안 병력과 함께 활동해야 함. 왜냐하면 이라크인이 이라크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임(타밋주 주지사)
- 한국군 파병시 이라크 경찰과 함께 협력하고 지방정부·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임. 경찰-의회-연합군간 치안공조위원회를 구성하면 치안질서, 재건복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이라크 국민의 생각이나 의식을 이해하고 무의식적이라도 이라크인을 무시하지 말 것을 권유함. 한국과 이라크는 서로 잘 알려져 있어 양 국민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것으로 봄. 모술주민은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바, 실례로 매일 수십 건의 테러관련 정보를 주민으로부터 접수받고 있음(이상 니나와주 부지사)
- 모술주민은 신앙심이 깊은 이슬람인들로서 종전후 정권붕괴시 약탈·방화를 주민들이 막는 등 테러분자와는 전혀 다름.(모술市 시의원)

⑤ 한국군 파병시 기대사항

- 치안 확보를 위한 장비, 시설, 훈련을 도와주길 바라며, 훈련은 요르단처럼 이라크밖 보다는 이라크내에서 도와주길 희망함. 특히 재건복구를 도와주길 바라는 바, 이라크의 많은 부처들은 한국처럼 경험 많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함(IGC 위원)
- 경찰 훈련 및 장비 지원, 교육, 사회인프라 구축, 의료·보건 등의 지원을 희망함(IGC 위원)
- 지역 경찰과 유력 인사들과 협력, 이라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는 현재 시급한 보건과 학교문제가 될 것임(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금방 얻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기초한 관계가 성립되면 앞으로 이라크 경제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보건·의료분야임. 또한 학교 및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도 필요함(이상 前 이라크 국회의장 고문)
- 키르쿠크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치안유지이며, 다음으로 재건 복구와 인도적 지원임(타밈州 주지사)
 -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기·상하수도 분야라 할 것임
 - 두번째로 시내외 도로·교량 개보수가 필요하며 의료사정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의약품 부족 등이 문제임
- 키르쿠크 의료시설의 파괴정도는 미미,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원 필요 분야는 전기, 수원 보호, 위생, 환경 미화, 연료 확보임(키르쿠크 부시장·경찰서 경위)
- 치안문제는 중·남부지역에 주로 해당되는 것임.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재건지원, 특히 전기부문과 의료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함(쿠르드 자치주 주지사)
-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제발전 프로젝트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치안 안정이 최우선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으며, 상수도가 없는 마을도 많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또한 전기는 치안과도 연계되어 있어 중요하며 도로·교량 개보수 및 학교시설 개보수에도 도움이 필요함.
- 이라크 경찰을 지원해 주는 병력이 온다면 한국 경찰의 경험을 전수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이상 니나와주 부지사)
- 하수도 처리시설, 병원, 정수시설 복구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실업률 해소를 위한 직업 창출임(나시리아 시의회 의장)
- 어린이 및 장애인 보호시설, 고아원 및 모스크사원 원조와 대학생 10명 장학생으로 방한 초청해줄 것을 희망함.
- 지역내 치료 불가 환자들의 한국 전지 치료 요청(최근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4명 전지 치료)
- 경찰의 능력이 강화되면 민병대 해체를 통한 치안확보가 가능함으로 경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이상 나시리아 종교지도자)
 - 특히, 원조시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보다는 양자간 직접 원조가 효과적일 것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기적인 지원을 권유함

⑥ 태권도·축구 사업의 예상효과

- 청소년 교류, 축구·태권도 교류도 좋다고 생각하나 체육 분야보다 상하수도 등 보다 시급한 분야가 많음(타밈주 주지사)
- 태권도·축구 등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직업창출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라크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모술市 시의원)

나. 미군 및 다국적군에 대한 정서

- 미군을 해방군 보다는 점령군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미군과 다국적군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지 않음
- 재건복구에 대한 기여정도에 따라 다국적군을 평가하는 경향

① 현재 미군 역할에 대한 평가

- 전쟁 종료 직후에는 미군들을 해방군(liberation army)으로 보는 의견이 높았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미군을 점령군(occupying forces)으로 보는 의견이 훨씬 높음. 현재 미군을 비롯 연합군임시행정처(CPA)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음(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군으로 치안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 테러발생 및 저항세력 준동에 대응하여 다시 외부세력(군)을 추가 투입하거나 콘크리트 장벽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은 치안을 오히려 불안시키는 역할을 하여 '악순환'을 초래함. 외국군은 이라크인을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음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후세인 체제를 싫어했지만 지금 미군이 하는 것을 보면 더 싫음. 과도 통치위 위원들까지도 미국이 하는 것에 실망 하고 있음. 미국은 새로운 종류의 또 다른 독재자에 불과함. 합법적인 새 정부 구성에는 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됨(前 이라크 국회의장 고문)
- 미군과 쿠르드족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음(아르빌주 주지사)
-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 미군이 고생한 것을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있음.
- 미군은 전투만 한 것이 아니라, 공병대가 도로·교량 개보수, 법관의 법 문제에 대한 자문, 경찰(헌병)이 있어 경찰훈련 실시, 농업 기타 분야의 전문가, 엔지니어, 경제·투자자문도 함께 하였음.
-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되는 모든 연합군은 미군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함(이성 니나와주 부지사)
- 과거 이라크인은 팔레스타인문제, 냉전체제, 이란혁명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에 의한 후세인 축출은 반미 감정을 상당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미군에 감사함(나시리아 시의회 의장)

- 단,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병력의 철수를 희망하며 우방국만이 재건 지원해주기를 바랍

② 미군 역할의 개선점

- 미군은 이라크인 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음. 이라크인들을 자극하고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음. 미군의 행동양식·대응양식이 문제임(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연합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들은 이슬람의 관습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여야 함
- 미군의 가장 큰 잘못은 전후 치안조직을 바로 해산한 것임. 이라크의 치안 조직이 확보된 후에 외국군이 철수하고 주권도 이양되어야 함(이상 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미군은 범죄자 검거에 있어 이라크인이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행위를 하고 있음. 이라크의 방식과 전통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의회에서 계속 권고하여 많은 향상이 있었음(니나와주 부지사)

③ 미군과 다국적군의 구분 시각

- 이라크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음. 그저 미군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미군과 하나의 지휘통제체제 아래 있다면 미군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다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연장(tool)에 불과함. 미국의 초청에 의해 들어오는 어떠한 외국군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임(前이라크 국회의장 고문)
- 외부세력(연합군세력)이 쿠르드 지역에 오면 모두 동일하게 보고 존중할 것임(아르빌주 주지사)
- 나시리아 지역내 주둔 이탈리아부대는 아랍문화와 관습에 대한 몰이해와 아랍부족에 대해 비협조적이므로, 부정적으로 보나 미군과 한국군은 부족의 요청사항을 전폭 지원해줌에 감사함(부족 지도자)

다. 과도통치위원회(IGC)에 대한 태도

- IGC가 이라크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으며, 지역이 아닌 종파배분에 따른 IGC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
- IGC에 보다 많은 권한 부여와 조속한 총선을 통한 합법정부 구성 기대

① IGC의 대표성 인정 문제

-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75%의 이라크 국민은 IGC 위원에 대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로는 구성원 대부분이 해외망명에서 귀환한 인사들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미국에 의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임(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IGC는 미국에 의해 만들어 진 기구이기 때문이 이라크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님. 18개 모든 주의 대표가 참여하는 National Conference (NC)를 구성해야 함. NC가 다수의(아마도 100명 이상) Governing Council를 구성하고 GC가 합법적인 새 정부를 선출하여야 함(前 이라크국회의장 고문)
- IG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CPA의 거부권을 폐기하여야 이라크 국민들의 신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이 같은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치안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현 IGC가 이라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나 IGC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정치세력도 있음(아르빌주 주지사)
- 현재 이라크는 의심의 여지없이 과도기임. IGC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음. 합법적으로 헌법이 마련되고, 총선이 실시되기전 까지의 과도적인 기구임. 위원들도 상당히 유능한 저항인사들로서 후세인 정권에 수십년 저항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IGC는 다른 인접국의 정부보다는 보다 합법적인 기구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희망함. 조속히 총선을 실시,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여야 함(이상 니나와주 부지사)

② IGC 구성 비율에 대한 만족도

- 이라크인들은 종파주의에 근거한 IGC의 구성에 대해 반대함. 이라크 국민은 종파주의가 아닌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사로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음. 전국 18개 주에 대한 안배가 없어 지역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과도통치위의 구성은 인격과 자질로 구성하여야 함. 정치적 성향과 능력을 중시하여야 하며, 종파나 정파로 임명되어서는 안됨(前이라크국회의장 교문)
- IGC의 구성이 재고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정치세력이 보다 많이 포함되어야 함. 현재 IGC에는 국내정치세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합법성 부여에 대하여 유보적인 상태임. 국내정치세력의 IGC참여는 정부에 합법성을 부여하며 치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 IGC는 과도적 기구임. 헌법이 제정되고 총선 실시 전까지 활동하는 과도 조직이므로 별다른 이견이나 불만 없으며 현재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함(아르빌주 주지사)
- 민감한 문제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모든 정파가 더 많은 세력을 원하고 있음. 임시적 기구로서 인정하고 있음. 앞으로 모든 정파가 비율에 따라 대표되는 정권이 구성되어야 함.
- 우리는 정상상황이 아니었으며 전쟁 중 과도기적 정부 구성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함(이성 니나와주 부지사)

라. 거주지역 치안 안전도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에 따라 치안상황 평가에 큰 차이(북부와 남부는 긍정적, 중부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
- 치안조직의 재건과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① 안심하고 생활하는지 여부

- 후세인 추종세력(FRL: Former Regime Loyalists)의 위협이 잔존하며 이는 이라크인에 대하여 위협이 되고 있는 바, 과거정권 잔당세력에 대하여는 조심하기 바람. (IGC 위원)

- 모술 주민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 종전후 약탈·방화를 방지하였음. 모술주민은 치안질서 확보를 희망하며 다른 주와 비교하여 모술시의 경찰력은 강하고 능력있고 실력도 있음.(모술市 경찰서장)
- 이라크 18개주 중 저항세력의 테러행위는 3-4개 주에 국한되어 있음. 가장 적은 곳이 니나와州임.(니나와州 부지사)
- 키루쿠크시는 치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 다만 후세인 잔당세력(FRL)이나 외부세력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치안방해를 시도하고 있음.(타밈州 주지사)
- 이라크는 현재 새로운 방법·형태의 폭력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후세인 잔당세력(FRL: Former Regime Loyalists)과 급진세력(Extremist)간의 연합임. 이라크인들은 지난 35년간 혹독한 독재속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 치안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으며 혼란한 상황(Chaos)속에 살고 있음.(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바그다드는 전쟁전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함.(前 국회의장 고문)
- 치안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임. 처음에는 미군을 환영했으나 지금은 원망함. 치안이 불안한 것은 미군이 기존 경찰과 군 조직을 전부 제거해 버렸기 때문 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이라크 경찰을 신뢰함.
- 이라크 국민은 테러에 분노하고 있으며, 테러범은 전부 해외에서 유입된 조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미군에 대한 민심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이 입만 열면 "시내를 확보하는 미군탱크 끌보기 싫다"는 소리를 함
- 지난 5월 이전에는 팔레스타인호텔 외부에 장벽이 없었으나 지금은 2중,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은 상태임
- 시민들은 전쟁시 경찰이나 군을 궤멸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치안상황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미군을 비난하고 있음.(이상 IT&T社 사장)
- 이라크 치안상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그다드 외곽에서나 있음직한 강도사건들이 현재는 바그다드 시내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종종 밤에도 총소리, 폭탄 터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경우도 있음(한국인 목사)

② 전쟁 전과 현재의 치안상황 비교

- 전쟁 이전에는 9개의 치안기구가 존재하였으며, 지금보다는 안전한 상태였음. 그러나 앞으로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면 과거보다 더 안전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모술市 경찰서장)
- 키르쿠크 지역에 들어오는 자에 의한 테러·위해 가능성은 상존하며, 특히 이 지역에 들어오는 자의 대다수는 이 지역 연고자들임.(173 공정여단 Mayville 지역 군정관)
- 키르쿠크의 치안은 현재 평온한 상태임. 지역내 주요 범죄 유형은 약탈과 차량절도이며, 살인의 경우 총격에 기인한 경우가 다수임.(키르쿠크 경찰서장)
 - 불법무기 수거 관련, 수색 및 압수절차를 취하며, 호신을 위하여 1가구당 1정의 무기 소지는 합법적으로 허용.
- 키르쿠크주는 10개區로 구분되며, 이중 치안불안 지역은 2개區일 뿐임. 테러는 수니 삼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바트당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며 아르빌 등 북부지역 대부분은 안전함.(니나와州 부지사)
- 최근 발생한 사건들중 연합군에 대한 공격외에 일반 범죄도 많음. 이는 치안조직이 와해되었기 때문이며 재건을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함. 과거 정권은 공포정치를 한 관계로 전후 주민들이 해방감을 느끼면서 범죄행위가 증가한 것임. 또한 경제적 곤란도 범죄행위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35년간의 독재아래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범죄행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함.
- 이라크를 동구국가와 비교하면 폴란드, 소련 등 사회주의 정권 붕괴시 많은 범죄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이들을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음. 조직적 범죄도 있는 바, 차량전문 절도 조직 등이 있으며, 1주일전 모술은행이 약탈당했음.
- 단지 무정부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불과함. 이들은 저항군도 독립군도 아닌 범죄세력에 불과하며, 과거정권 잔당세력(FRL)이 이들을 이용하고 있음(이상 니나와州 부지사)
- 30여년간의 독재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국민경제를 가지고 해방되었으므로 경제 정상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합국에서 치안유지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크게 나아진 것은 없음.(타밋州 주지사)

- 치안불안 요인에는 국내적 요인과 해외적 요인이 있음. 중요한 것은 '외국의 간섭'(external interference)이라는 외부적 요인임.
- 주변국들은 이라크가 민주국가로서 진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자유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주변국들은 이라크의 민주화와 발전을 원하지 않으며 이라크 정치에 개입하고 이라크내의 폭력을 지원하고 있음.
 - 그들은 미국의 꿈이 이라크내에서 실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미국은 종전 후 이라크의 군대를 해산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음. 최소한 국경수비력을 유지하였으면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것임.(이상 이라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 현재 이라크의 저항세력은 '3R+A+S'의 혼합으로 간략히 설명할 수 있음.
- 3R은 'Resistance, Religion, Revenge'로 Resistance는 일반인들의 애국심(patriotism)의 발로로 외국 점령군에 대한 저항, Religion은 이슬람의 가르침, Revenge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복임.
- A는 경찰·공화국수비대 등 과거 치안·보안분야에 종사하였던 경력자들, S는 Saddamist로 사담추종세력(FRL: Former Regime Loyalists)을 의미하며, 이들은 일반국민으로부터 쉽게 저항세력 들을 충원하고 있음.
- 전쟁 이후 치안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이라크인 들은 스스로 치안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 치안상황 악화의 주요인은 무엇으로 복합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문제'임.(이상 前 국회의장 고문)
- 전쟁전의 경우 후세인 정권의 독재에 의한 억압·공포정치를 통해 치안이 유지되었으나, 현재의 치안상태는 후세인 정권 당시보다 오히려 양호하며, 매월 3건 이하의 범죄가 발생하는 정도임(나시리아 시의회 의장)

③ 치안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

- 키르쿠크 지역의 테러분자 색출과 관련, HUMINT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지역내 범죄중 가장 빈발한 범죄는 약탈(looting)이며, 현재 미군에 의한 치안 유지에서 이라크 경찰로의 대체를 통해 현지인의 대미 악감정에 기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있음.(173 공정여단 Mayville 지역 군정관)

- 현지인 고용, 수시 탐문 및 자발적 협력 유도를 통해 local network을 구축, 다만, 이러한 지역적 network을 연계할 global network 구축미흡
- 이라크인은 치안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그다드 정부도 치안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라크경찰이 연합군보다 범죄자를 더 잘 알고 있어 충분한 장비나 조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라크의 통치력이 강화되면 테러는 없어질 것임.
(이상 니나와주 부지사)
- 전쟁이후 일반범죄는 줄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목적의 테러는 상당히 증가하였음.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치안조직이 제대로 구성, 확립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바그다드대 정치학 교수)

④ 거주지역내 핵심적 저항 세력

- 모술내에는 테러분자, 후세인 추종세력 등 숨어있고 겁먹은 세력에 불과함.
- 테러분자들은 조직이 적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숨어 지내고 있는 바, 모술 주민들은 테러리스트들의 검거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상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기반이나 유대가 없으며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과거정권 잔당, 페다인 민병대, 이슬람 과격세력(이들은 이슬람과 무관함), 외부지원을 받는 세력도 있음. (이상 모술市 경찰서장)
- 저항세력의 규모는 굉장히 적음. 핵심저항세력은 후세인 추종세력으로서 누렸던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반발하는 것임. 또한 치안부재를 이용하여 침투한 외국세력들도 주요 문제임.(타밈州 주지사)
- 후세인 추종세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적은 것으로 보나 문제는 많은 불만세력들의 존재임. 이들은 위협세력들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임.(전 국회의장 고문)

⑤ 현재 양성되고 있는 군·경찰에 대한 평가

- 경찰인력 확충 관련, 유경험자의 경우 2주 기본훈련후 배치하고 있고 무경험자의 경우는 보다 장기간(45일)의 훈련과정을 거침.
- 주변지역에서도 교육자를 정기적으로 파견, 교관은 CPA에서 임명

○ 과거 정권과 연관되지 않은 경찰인력의 선발에 중점을 두고 보다 부드러운 대민 접촉을 취하고 있으며, 경찰서를 개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보다 개방된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민-경 회의 개최, 지도급 인사와의 수시 협의 등 과거 정권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키르쿠크 경찰서장)

○ 경찰간부들의 능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 등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차량 등 기동장비와 범죄자 체포를 위한 통신장비, 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함. 이라크 국민이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바임.(IGC 위원)

○ 이라크인은 치안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정부도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라크경찰이 연합군보다 범죄자를 더 잘 알고 있어 충분한 장비나 조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라크의 통치력이 강화되면 테러는 없어질 것임.(니나와주 부지사)

○ 치안세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치안확보에 어려운 상황으로 치안조직의 확충 뿐 아니라 장비, 차량, 통신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함.(타밈주 주지사)

마. 우리의 추가파병 관련 교민 및 진출 기업 반응

○ 현지 교민과 진출기업은 파병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

○ 파병을 한다면 이라크인들의 저항감을 무마시킬수 있는 지원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희망

○ 추가 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바그다드 등 이라크내 한국인들은 점차 자신들이 목표물(Target)이 될 것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음(모건설 이라크 사무소)

- 한국 전투병 파병시 이라크 국민과 한국군 사이의 불상사 야기로 반한 감정 발생이 예상됨

○ 파병이 결정된 상태라면 이라크인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파병방안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함(목사)

- 전투병 또는 비전투병 논란보다는 이라크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파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파병이 불가피하다면 공병 위주로 파견지역내 교량보수 등 전후복구사업에 치중하여 이라크를 위한 지원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모건설 이라크 사무소)
 - 치안 유지를 위한 군대가 파병될 경우 이라크 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
 - 이라크 사람들로부터 그 동안 한국인들이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치안유지군 파견으로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안타까움
- 파병 임무는 치안을 주로 하여 지원임무를 병행해서 수행해야 하며, 전쟁상태이므로 자체 방어능력도 구비해야 함(IT&T社)
- 이라크내 극소수 인원은 전투병·비전투병 고려하지 않고 테러를 가할 것이며, 파병부대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여러 지역에 파견하는 것 보다 유리함(모건설 이라크 지사)
- UN 등 국제기구 요원들도 비전투 요원이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쿠웨이트 한인교회 집사)